



선한 목자 예수 대축일 총원장의 인사 (2020 년)

고통 속에 있는 인류를 자비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찬미하며, 특별히 전 세계의 교회 안에 퍼져있는 모든 빠스또렐라가 존재하고 살아가도록 사목 카리스마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

“전례에서 선한 목자라는 이름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잘 드러나는데, 미사 중에 읽은 복음에서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이름, 이 단어가 강조하는 바와 같습니다. 예수님께서서는 ‘나는 선한 목자이다(요한 10,11).’라는 말을 반복하셨고, 선한 목자로서 한 목자 아래 한 양우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. 여러분은 ‘선한 목자 예수님의 수녀들’이라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매우 기뻐해야 합니다. 주님께서서는 전 교회가 하나의 양 우리요 하나의 양떼이라는 생각을 강조하셨습니다. 인도하는 영원한 목자를 모신 한 양떼입니다. (AAP 1961, 119.121)”

오늘 복자 알베리오네의 정신으로 하느님 백성 한 가운데서 우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살면서, 인류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, 하루빨리 ‘한 목자 아래 하나의 양떼를(요한 10,16)’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.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‘우리 중에 그 누구도 타인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나인 외딴 섬이 아닙니다.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함께 미래를 건설해야 합니다.’라고 이야기했습니다.

전염병 때문에 세계적으로 위급한 이 시기에 “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.”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을 환히 비추는 촛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가정과 본당 그리고 수도공동체는 희망이 가득 찬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. “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름이 있는 미래가 있는데, 그 이름은 희망입니다. (...)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마음을 달지 않고, 과거에 매이지 않으며, 현재를 무시하지 않고 내일을 바라볼 줄 압니다(프란체스코 교황, 2017년 밴쿠버의 TED 메시지).”

우리에게 생명을 풍부하게 주시는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께 의탁합시다.

선한 목자 예수님의 축일을 축하 드립니다!

기도와 사랑으로
총원장 아민따 푸엔테스 수녀